

OECD Forum 출장보고서

2018. 6. 18

임원혁

1 출장 개요

○ 출장 배경 및 목적

- OECD가 5월 28(월)~30일(수)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는 '2018 OECD 포럼'에 KDI가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(별첨 1. 참여 확인 서한)
- OECD 장관급 회의와 더불어 OECD 주간(OECD Week)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포용적 성장, 디지털화,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
- OECD 포럼 개최 전 KDI를 대표하여(별첨 2. 포럼 참여 관련) 기후변화 부문 국제협력 관련 논평을 제출(별첨 3. Climate Action)
- 주최측으로부터 본 논평에 대해 발표할 뿐 아니라 포럼에서 진행되는 Idea Factory 워크숍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아 본 출장을 기획
- OECD Forum 참여를 통해 KDI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, 디지털화, 국제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기여

○ 출장 주요 정보

소속	성명	직위	출장기간	출장지
KDI	임원혁	글로벌경제연구실장	5.27(일)~5.31(목)	프랑스 파리

○ 주요 일정

일자	주요 내용	비고
5.27(일)	○ 출국(13:20 인천 출발, 18:30 파리 도착)	KE901 / Mercure Paris Centre Tour Eiffel
5.28(월)	○ Idea Factory 참석(14:00~18:00)	OECD CC12
5.29(화)~5.30(수)	○ OECD Forum 2018	별첨 4. 프로그램
5.30(수)	○ 파리 출발(21:00)	KE902
5.31(목)	○ 입국(15:00 인천 도착)	

② 주요 논의 내용

- 5월 28일 열린 Idea Factory는 Re-bo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(더 정확하게는 Re-founding Multilateralism)을 주제로 다자주의의 기반을 다시 한 번 공공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
 - 세계화와 숙련편향 기술변화가 진행되면서 북미와 서유럽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점증되었고, 세계화와 숙련편향 기술변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득세
 -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을 통해 세계화를 견제하고,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(테러, 난민) 문제와도 결부하여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2016년 Brexit과 트럼프 당선의 배경으로 작용
 - 세계화와 숙련편향 기술변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온 상황에서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 정책과 외국인 유입 차단이 과연 얼마나 일자리를 복원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지만,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실업 후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
 -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·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
 - 참여자 중 일부는 경제·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였지만, 국가 간 경제·사회적 격차의 해소는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이 고소득국을 추격함에 따라 이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소득국의 불안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의 설득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
 - 오히려 세계화와 숙련편향 기술변화에 따른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귀속되어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달성하고 재분배도 고려해 볼 필요
- 5월 29일~30일 오전에 열린 OECD Forum에서는 포용적 성장, 디지털 경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나, 병렬적으로 분과가 진행됨에 따라 주로 무역 및 국제협력 관련 논의에 참여
 - 대다수의 참석자는 다자주의(회원국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)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화의 부작용과 기술변화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
 - 하지만, Wilbur Ross 상무장관 등 미국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참석자는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가 양자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고 복잡하지 않아 우월한 것으로 평가
 -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회원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기존 다자주의 무역체제질서를 흔들면서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